

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창조직업의 고용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다!
- 한국의 창조직업 현황과 시사점

발행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창조직업의 고용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다 - 한국의 창조직업 현황과 시사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Executive Summary | i |
| 1. 개 요 | 1 |
| 2. 한국 창조직업 현황 | 4 |
| 3. 한국 창조직업의 특징 | 7 |
| 4. 시사점 | 16 |
| 【HRI 경제 통계】 | 18 |

< 요약 >

개요

- 창조직업: 창의적 사고를 통한 혁신 추구 및 문제 해결을 업무로 하는 직업
- 창조직업의 역할: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성장 동력이자 고용 증대 방안

한국 창조직업의 현황

- 2010년 기준 한국의 창조직업 비중은 전체 직업의 37.8%이나,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18.4%에 불과
 - 한국의 창조직업은 4,254개로 전체 직업 11,242개 중 37.8%를 차지
 - 창조직업 종사자는 44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2,405만 명 중 18.4%에 불과
-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는 교육 및 연구, 보건·의료, 문화·예술 직종에 집중
 - 교육 및 연구, 보건·의료, 문화·예술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는 226만 여 명
 - 이는 전체 창조직업 종사자 443만 명 중 51.0% 수준

한국 창조직업의 특징

- ① 창조직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
 - 창조직업 종사자 수: 2005년 419만 명→2008년 474만 명→2010년 443만 명
 -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비중: 2005년 18.1%→2008년 20.0%→2010년 18.4%
- ② 보건·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창조직업 종사자 증가
 - 보건·의료 직종 내 창조직업 종사자: 2007년 37.9만 명→2010년 49.9만 명
 - 사회복지 직종 내 창조직업 종사자: 2007년 13.4만 명→2010년 21.9만 명
- ③ 창조직업에서 여성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
 - 창조직업 종사자 중 여성 인력 비율: 2007년 42.1%→2010년 44.6%
 - 2007~10년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증가: 보건·의료 8.5만 명, 사회복지 8.3만 명
- ④ 창조직업 간 임금 격차 발생
 - 2010년 보헤미안 직업 임금 근로자 소득 216만 원/월(창조직업 평균의 77.0%)
 - 사회복지 직종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 소득 120만 원/월(창조직업 최저 수준)

시사점

첫째, 산업 구조 및 사회 변화, 직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창조직업의 발굴
 둘째, 창조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종사자 수 증대 대책 마련
 셋째, 다양한 창조직업으로의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
 넷째, 여성에 적합한 창조직업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
 다섯째, 창조적 경제 활동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인식을 제고
 여섯째, 직업의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직업조사시스템의 확대 및 세분화

1. 개 요

○ 창조직업의 중요성

- (창조직업의 수요의 확대) 창조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와 창조직업을 찾는 구직자의 증가로 창조직업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
 - 교육 및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,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창조적 노동이 가능한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,
 - 구직자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에서 즐거움을 위한 놀이의 연장으로 확장되면서 창조직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
 - 이에 따라 창조직업 및 관련 인재 육성은 국가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임
- (창조직업의 역할) 창조직업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
 - 창조직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고를 통해 주변 환경을 자극하고 사회적 통념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
 - 현재 한국 경제는 물적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 단계에서 '창의성(Creativity)' 및 '혁신(Innovation)' 중심의 지식 기반 경제 단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진입
 -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에서 고부가가치화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창조직업의 육성은 더욱 시급한 과제
- (연구의 필요성) 창조직업의 분포는 국가의 '창의성'과 '혁신'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

○ 창조직업의 개념 및 분류

- (개념) 창조직업이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고, 지식 및 정보의 결합을 통한 해결책 도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업을 의미
 - Florida는 창조적 계급(The Creative Class) 및 창조직업을 개념화, 창조에는 기술적 창조, 기업가 정신, 경제적 창조, 문화·예술적 창조로 구성된다고 주장
 - 더불어 전통적인 제조, 건설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달리 창조직업 종사자들에게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함을 강조

- (분류) Florida의 방법론에 따르면, 창조직업은 창조전문직업, 핵심창조직업, 보헤미안직업으로 분류
 - 창조전문직업이란 비즈니스, 금융, 의료 등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경영자를 비롯한 관리자 역시 해당 분류에 포함
 - 핵심창조직업이란 혁신적인 사고 및 기술, 콘텐츠의 창출을 통해 보상을 받는 직업을 의미하며, 연구자, 교육자 등이 포함
 - 보헤미안직업은 문화·예술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들이 포함

< Florida의 창조직업 분류에 따른 국내 창조기업 분류 >

| 분류 | 분야 | 직업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창조전문직업 | 경영, 관리, 법률, 금융, 의료 등 | 비즈니스 전문가(241),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가(342), 법률가(242), 의사, 간호사 및 보건·의료 전문가(222, 223, 32), 물리·공학 준전문가(31), 금융 준전문가(341) |
| 핵심창조직업 | 컴퓨터, 연구, 건축·디자인, 교육 등 | 컴퓨터 전문가(213), 수학·통계학자(212), 건축, 기계 전문가(214), 생명공학자(221), 물리·화학 전문가(211), 사회과학자(244), 교육자(231, 232, 234, 235), 기록물 관리 및 정보 전문가(243) |
| 보헤미안직업 | 문화·예술, 연예, 미디어, 스포츠, 패션 등 | 작가 및 아티스트(245), 사진작가 및 시청각 장비 전문가(3131), 예술·예능·스포츠 관련 전문가(347), 패션과 모델 관련 직종(521) |

자료: Florida(2002a, 2004).
 주: 괄호는 ISOC-88 분류 코드.

○ 연구 방법

- 기존의 창조직업 분류 가운데 Florida의 방법을 차용하고 보건·의료, 사회복지 등의 일부 직업을 추가하여 창조직업군을 재분류
 - Florida의 창조직업 분류에는 경영, 연구, 교육 등과 관련된 직업의 대부분이 포함된 반면,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직업은 상당 부분 제외
 - 이 같은 차이는 창조직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, 사회 구조 및 직업 수요의 변화에서 기인
 - 본보고서는 Florida의 창조직업 분류를 일부 확장하여 창조직업군을 재분류
-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창조직업수와 종사자수를 Florida의 부문별, 직종별로 살펴보고 한국 창조직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

【참고】 창조직업의 분류 방법

- 창조직업의 분류 방법은 크게 산업 기반 분류, 직업 기반 분류, 직업-산업 혼합 분류 방식으로 구분
 - 산업 기반 분류는 1998년 영국의 DCMS(문화·미디어·스포츠 부, Dept. for Culture, Media & Sport)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표준 산업 분류(SIC)를 기준으로 핵심 창조 산업 내의 직업을 창조직업으로 한정
 - 직업 기반 분류는 2002년 Florida가 고안하였으며, 표준 직업 분류(SOC)를 기준으로 창조직업(창의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)을 정의
 - 직업-산업 혼합 분류 방식은 표준 직업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Higgs(2008), Mellander(2009) 등이 고안
- 분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, 현재는 Florida 방식이 보편적임
 - 직업 기반 분류는 직업 분류에 따라 종사자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창조직업 종사자 추정에는 용이하나 창조직업 선별의 모호성이 단점
 - 산업 기반 분류는 특정 창조 산업 종사자수를 창조직업으로 구분하여 선별의 모호성은 보완되나 비창조 산업의 창조직업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

< 창조직업 분류 방법 >

| 방식 | 대표 연구 | 분류 방법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직업 기반 분류 | Florida(2002a, 2004) | · 창조직업을 직업 특성에 따라 창조전문 직업, 핵심창조직업, 보헤미안직업으로 분류 |
| | McGranahan & Wojan(2007) | · Florida의 분류방식 개량 · 지역 별로 각 분야의 직업군을 세부화해서 창조직업을 분류 |
| 산업 기반 분류 | DCMS(1998, 2001) | · 창조직업을 13개의 핵심 창조 산업의 전체 종사자로 정의 |
| 직업 · 산업 혼합 분류 | Mellander(2009) | · Florida의 분류방식 이용 · 창조직업 분류 후 산업 내 직업분포를 이용하여 보완 |
| | Higgs et al(2008) | · DCNS의 분류방식 이용 · 비창조산업에 있는 창조직업을 포함 |

자료: 각 연구자의 논문.

주: DCMS는 영국의 문화·미디어·스포츠 부(Dept. for Culture, Media & Sport).

2. 한국 창조직업 현황

○ 유형별 직업 및 종사자 분포

- 한국의 전체 직업 11,242개 가운데 창조직업의 수는 4,254개
 - 한국은 직업명 기준으로 전체 직업 11,242개¹⁾의 직업이 있으며, 이 중 창조 직업의 수는 4,254개(전체 직업 수 대비 창조직업 수 비중 37.8%)
 - 한국의 창조직업 수 비중이 창조직업 종사자 수 비중에 비해 큰 것은 창조 직업의 전문화보다는 한국 직업의 전반적인 세분화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
- 한편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은 창조직업의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 - 2010년 기준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44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18.4%수준을 차지함
 - 이는 창조직업의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창조직업의 세분화정도에 비해 고용창출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 가능

< 한국의 유형별 직업 및 종사자 분포(2010년 기준) >

(단위: 개, 만 명, %)

| | 직업 | | 종사자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직업 수 | 전체 직업 대비 비중 | 종사자수 | 전체 종사자 대비 비중 |
| 전체(군인제외) | 11,242 | 100.0 | 2405.4 | 100.0 |
| 창조직업 | 4,254 | 37.8 | 443.0 | 18.4 |
| 창조전문직업 | 2,217 | 19.7 | 218.0 | 9.1 |
| 핵심창조직업 | 1,172 | 10.4 | 178.3 | 7.4 |
| 보헤미안직업 | 865 | 7.7 | 46.7 | 1.9 |
| 비창조직업 | 6,988 | 62.2 | 1962.3 | 81.6 |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1) 고용정보원의 직업사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직업은 총 11,655개이나 중복 제외 시 총 직업 수는 11,242개로 집계.

○ 직종별 창조직업 종사자 분포

-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는 교육 및 연구직과 보건·의료, 문화·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
 - 2010년 기준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는 교육 및 연구직에 133만 9천여 명, 보건·의료분야에 49만 9천여 명, 문화·예술 분야에 42만 3천여 명이 종사
 - 전체 23개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중 3개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.0%
- 한편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직종은 문화·예술, 관리직, 교육 및 연구 분야로 나타남
 - 문화·예술 분야 직종은 직종 내 모든 종사자가 창조직업 종사자로 분류됨
 - 관리직과 교육 및 연구직의 경우 직종 내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이 각각 98.0%, 95.5%로 나타나서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

< 한국의 직종별 창조직업 종사자 분포(2010년 기준) >

(단위: 만 명, %)

| 직종 | 창조 직업 종사자수 | 직종 | 창조 직업 종사자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관리직 | 26.0 (98.0) | 건설 | 25.3 (19.4) |
| 경영,회계,사무 | 8.4 (2.3) | 기계 | 11.0 (10.8) |
| 금융,보험 | 5.8 (9.2) | 재료 | 2.0 (4.4) |
| 교육및자연과학,사회과학연구 | 133.9 (95.5) | 화학 | 1.6 (9.7) |
| 법률,경찰,소방,교도 | 2.5 (11.3) | 섬유,의복 | 0.2 (0.6) |
| 보건,의료 | 49.9 (59.3) | 전기전자 | 13.8 (16.0) |
| 사회복지,종교 | 21.9 (38.8) | 정보통신 | 31.1 (79.3) |
| 문화,예술,디자인,방송 | 42.3 (100.0) | 식품가공 | 0.7 (3.1) |
| 운전,운송 | 1.8 (1.3) | 환경,인쇄,목재,가구,공예 | 16.2 (20.2) |
| 영업,판매 | 30.1 (9.3) | 전체 | 443.0 (18.4) |
| 미용,숙박,여행,오락,스포츠 | 18.5 (28.9) | | |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주: (1) 직종은 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.

(2) 창조 직업은 창조전문직업, 핵심창조직업, 보헤미안직업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.

(3) 괄호 안은 직종별 창조 직업 종사자 / 전체 직업 종사자 비중

(4) 창조직업이 없는 “경비,청소”, “음식서비스”, “농림어업”은 위의 표에서 제외.

【참고】 미국의 창조직업

- 미국의 창조직업 수는 한국에 비해서 많은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서 창조직업이 더 세분화·전문화
 -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창조직업 기준에 따라 미국의 창조직업을 분류
 - 2010년 기준 미국은 전체 직업 30,801개 가운데 창조직업 수가 5,963개로 한국의 4,254개보다 많은 수준
 - 미국의 직업은 창조직업은 물론이고 비창조직업에서도 한국에 비해서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판단 가능

- 한편 미국의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 역시 한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창조전문직업 종사자의 차이에 기인함
 - 2010년 기준 미국의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27.4%수준으로 한국의 18.4%에 비해 높은 수준
 - 이는 미국의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비중 16.5%로 한국의 9.1%에 비해 매우 높은 점에서 기인
 - 한편 핵심창조직업과 보헤미안직업의 종사자 비중은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

< 미국의 유형별 직업 및 종사자 분포(2010년 기준) >

(단위: 개, 만 명, %)

| | 직업 | | 종사자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직업 수 | 전체 직업 대비 비중 | 종사자수 | 전체 종사자 대비 비중 |
| 전체(군인제외) | 30,801 | 100.0 | 12,710 | 100.0 |
| 창조직업 | 5,963 | 19.4 | 3,477 | 27.4 |
| 창조전문직업 | 3,445 | 11.2 | 2,094 | 16.5 |
| 핵심창조직업 | 1,573 | 5.1 | 1,138 | 9.0 |
| 보헤미안직업 | 945 | 3.1 | 245 | 1.9 |
| 비창조직업 | 24,838 | 80.6 | 9,233 | 72.6 |

자료: U.S. Census Bureau, 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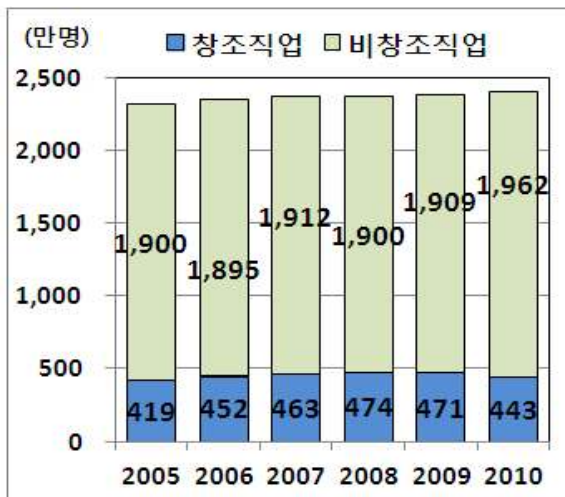
3. 한국 창조직업의 특징

(1) 창조직업 종사자 증가의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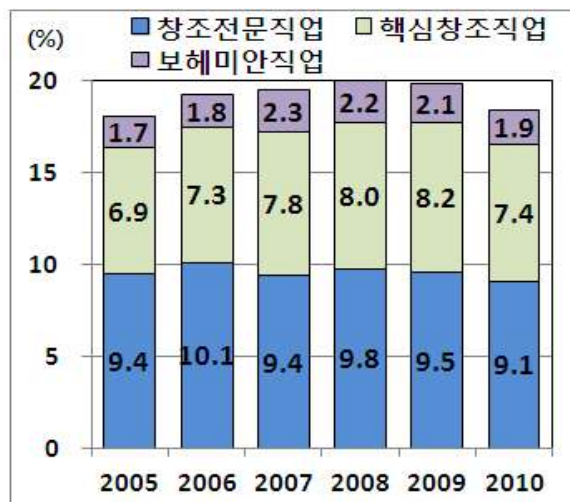
○ 창조직업 종사자 감소

-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2008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였으나 2009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
 -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전체 직업 종사자 수는 2,318.6만 명에서 2,405.4명으로 증가
 - 같은 기간 창조직업 종사자 수 역시 418.7만 명에서 443.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, 2008년의 정점(473.8만 명) 이후로는 2009년, 2010년 연속으로 감소
- 이에 따라 전체 종사자 가운데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비중 역시 감소
 - 전체 직업의 종사자 가운데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비중은 2005년 18.1%에서 2008년 20.0%까지 증가
 - 이후 2009년 19.8%, 2010년 18.4% 등 창조직업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창조직업과 창조직업의 증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

< 창조직업과 비창조직업
종사자 수 비교 >



<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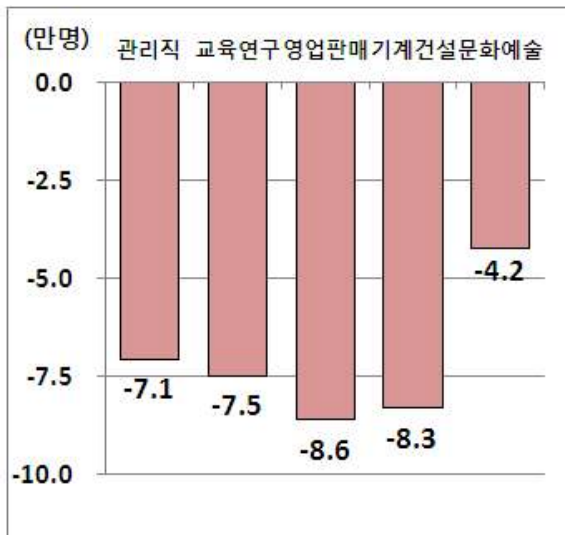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○ 창조직업 종사자 감소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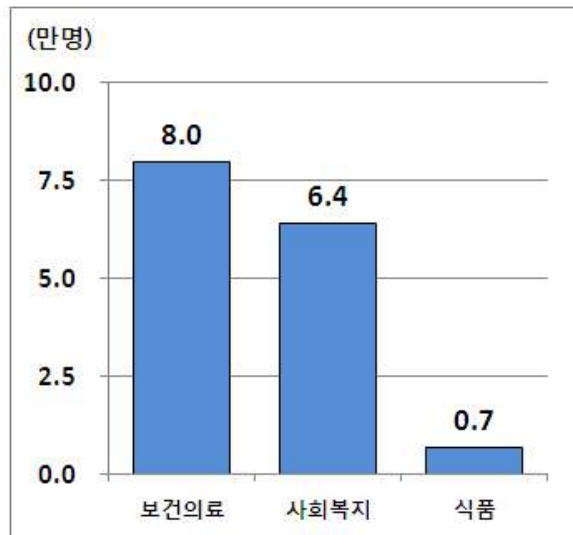
- 한국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감소는 창조전문직업 및 핵심창조직업의 종사자 수 감소가 주요 요인
 - 2008년에서 2010년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수는 13.5만 명 감소하였으며, 핵심 창조직업의 종사자 수는 11.2만 명 감소
 - 이에 따라 전체 직업 종사자 가운데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비중은 9.8%에서 9.1%로 감소하였으며, 핵심창조직업 종사자의 비중은 8.0%에서 7.4%로 감소

- 특히 '관리직', '영업·판매', '기계', '건설' 직종 등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의 변화를 보여줌
 - 2008~2010년 '관리직' 7.1만 명, '영업·판매' 8.6만 명, '기계' 4.9만 명, '건설' 3.5만 명 감소는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감소의 주요 원인
 - 동 기간 '교육·연구' 직종은 7.5만 명 감소하였는데, 특히 연구 직종의 창조경제 종사자 4.1만 명 감소가 핵심창조직업 종사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한편, 창조직업 종사자 수가 증가한 직종은 '보건·의료', '사회복지', '식품'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창조직업 종사자 수 감소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음

< 2008~2010 창조직업 종사자 수 감소폭이 큰 직종 및 감소 규모 >



< 2008~2010 창조직업 종사자 수 증가 직종 및 증가 규모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주: (1) 2010년 기준.

(2) 창조직업은 창조전문직업, 핵심창조직업, 보헤미안직업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.

(2) 보건·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증가

○ 보건·의료 및 사회복지 직종의 창조직업 내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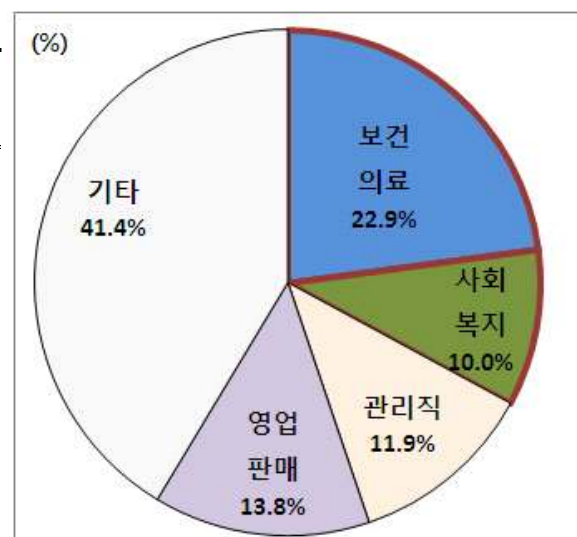
- 창조전문직업은 종사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창조직업 가운데 가장 종사자 수가 많은 유형
 - 2010년 기준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수는 218.0만 명이며 이는 한국 전체 직업 종사자 중에서 9.1%를 차지
 - 또한 전체 창조직업 종사자 수 대비 비중이 49.2%에 달하는 등 창조전문직업은 종사자 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이 중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‘보건·의료’와 ‘사회복지’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은 창조전문직업 종사자 가운데 3분의 1 수준
 - 2010년 기준 ‘보건·의료’ 분야의 창조직업 종사자는 49.9만 명으로 창조전문직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(22.9%)
 - 이밖에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큰 ‘사회복지’는 창조전문직업에서 ‘보건·의료’, ‘영업·판매’, ‘관리직’ 다음으로 창조직업 종사자가 많은 직종

< 창조직업 유형별 종사자 분포 >

(단위: 만 명, %)

| | 종사자수 | 비중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전체(군인제외) | 2,405.4 | 100.0 |
| 창조직업 | 443.0 | 18.4 |
| 창조전문직업 | 218.0 | 9.1 |
| 핵심창조직업 | 178.3 | 7.4 |
| 보헤미안직업 | 46.7 | 1.9 |
| 비창조직업 | 1,962.4 | 81.6 |

< 창조전문직업 내 직종별 종사자 비중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주: 2010년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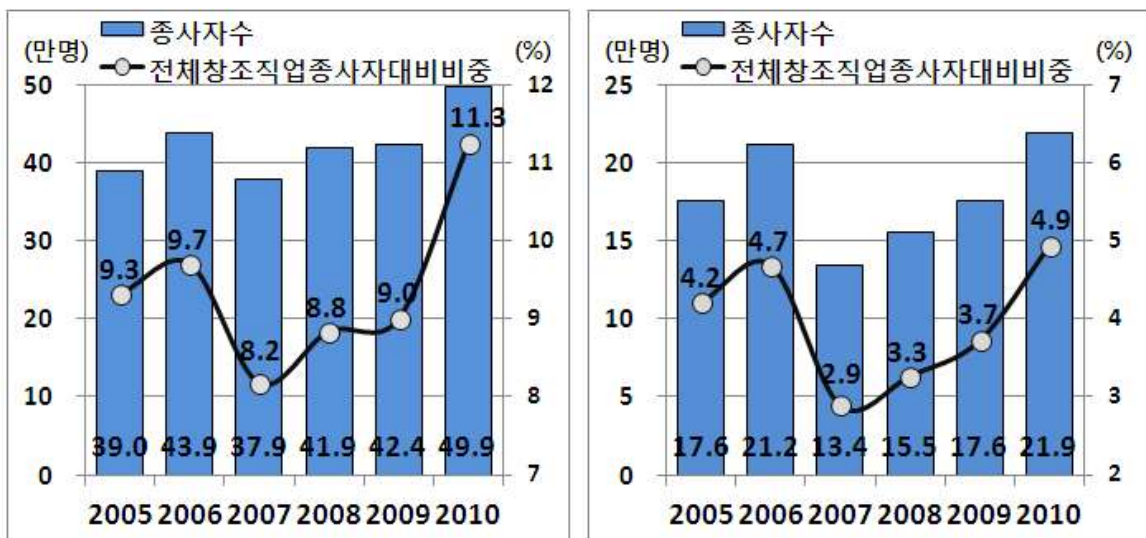
○ 종사자 증가 추세

- '보건·의료' 분야는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한국 창조직업 중 가장 인력 수요가 큰 직종으로 부상 중
 - '보건·의료'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2007년 37.9만 명에서 2010년 49.9만 명으로 증가
 - 이에 따라 전체 창조직업 종사자 가운데 '보건·의료'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.2%에서 11.3%로 증가

- '사회복지'는 '보건·의료' 다음으로 창조직업 종사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, 이 둘 직종은 창조전문직업 가운데 대표적인 성장 분야
 - '사회복지'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2006년 21.2만 명에서 2007년 13.4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나, 이후 2010년까지 21.9만 명으로 다시 증가
 - 전체 창조직업 종사자 수 대비 '사회복지'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10년 기준 4.9%까지 증가

- '보건·의료' 및 '사회복지' 직종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 증가는 사회 변화 등에 따른 해당 직종의 인력 수요 및 구직자의 일자리 수요 증가에서 기인

< 보건·의료 직종 창조직업 종사자 수 > < 사회복지 직종 창조직업 종사자 수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(3) 창조직업 내 여성 비중의 급증

○ 창조직업 종사자의 여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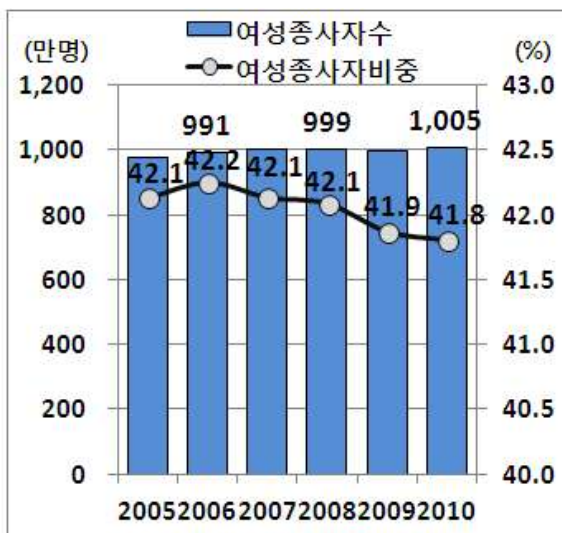
- 전체 직업에서 여성 종사자 수는 점진적인 증대 추세를 보이지만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

- 전체 여성 종사자 수는 2006년 991.1만 명, 2008년 996.6만 명, 2010년 1,005.5만 명으로 소폭 증가
- 하지만 전체 종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2.2%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2010년에는 41.8%까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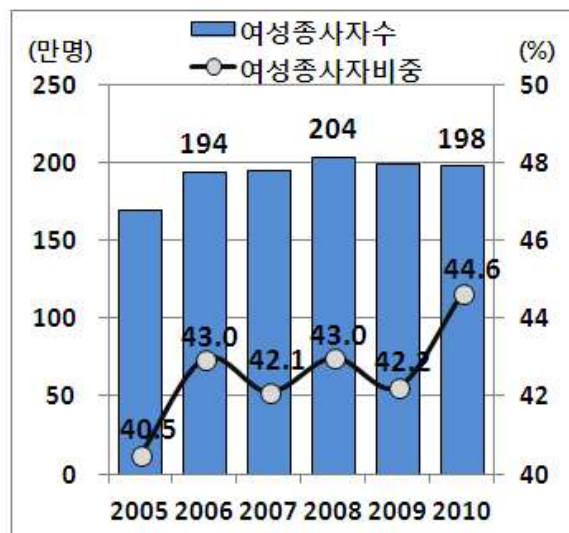
- 하지만 창조직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 인력의 남성 대체가 진행

- 여성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03.6만 명의 정점 이후 2009년 199.0만 명, 2010년 197.7만 명으로 소폭 감소
- 하지만 전체 창조직업 종사자 수 대비 여성의 비중은 2008년 43.0%에서 2010년 44.6%로 증가
- 특히 2005년과 2010년의 비교 시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는 28.2만 명 증가하였으며, 남성 창조직업 종사자는 3.9만 명 감소

< 전체 직업 내 여성 종사자 분포 >



< 창조직업 내 여성 종사자 분포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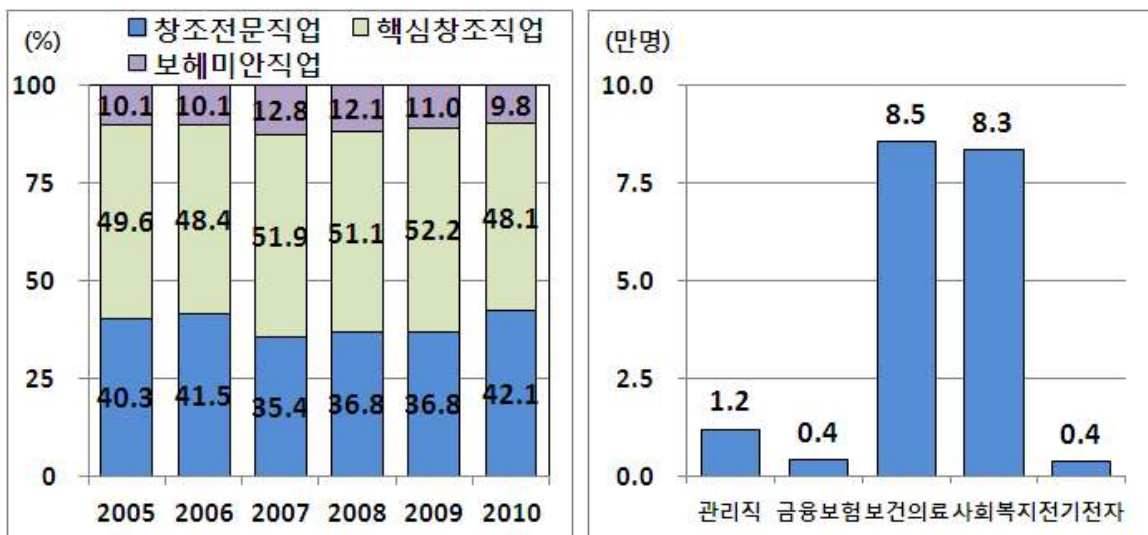
○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비중 증가의 원인

- 2007년 이후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가운데 창조전문직업의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
 - 전체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중 창조전문직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7년 35.4%에서 2010년 42.1%로 빠르게 증가
 - 반면, 같은 기간 핵심창조직업 종사자의 비중이 51.9%에서 48.1%로 감소하였으며, 보헤미안직업 종사자의 비중 역시 12.8%에서 9.8%로 감소

- 창조전문직업의 여성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기간 동안 '보건·의료' 및 '사회복지' 직종에서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수가 급증
 - '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여성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직종은 '보건·의료'(26.4만 명→34.9만 명)
 - 이밖에 같은 기간 동안 '사회복지' 직종의 여성 창조직업 종사자 수는 13.3만 명에서 21.6만 명으로 증가

- 이는 여성 인력의 증가가 '보건·의료' 및 '사회복지' 분야의 창조직업 종사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

< 보건·의료 직종 창조직업 종사자 수 > < 2007~2010 창조직업 여성 종사자 수 증가 직종과 증가 규모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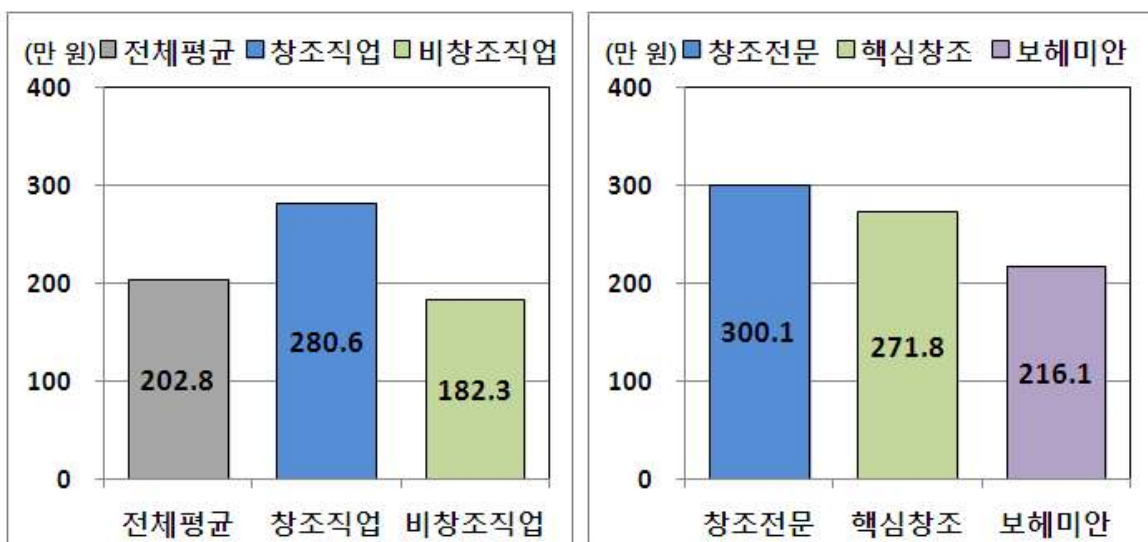
(4) 창조직업 간 임금 격차 발생

○ 창조직업 유형별 임금 격차

- 전반적으로 창조직업의 소득 수준은 비창조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창조직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반영
 - 2010년 기준 전체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80.6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인 202.8만 원을 상회
 - 특히 비창조직업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,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1.54배 높게 나타남

- 하지만 창조직업 내에서도 유형별 소득의 차이가 크고, 특히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 역할이 기대되는 보헤미안 직업의 소득은 가장 낮은 상황
 - 관리직, 법률, 금융, 사업 서비스 전문가 등이 포함된 창조전문직업의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0.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
 - 다음으로는 연구 및 기술, 교육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핵심창조직업(271.8만 원)이며, 문화·예술 관련 직업이 대부분인 보헤미안 직업 임금 종사자의 평균 소득은 216.1만 원으로 전체 창조직업 평균 소득의 77.0%에 불과

< 전직업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> <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>

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 주: 2010년 기준.

○ 종사자가 증가하는 창조직업의 낮은 임금

- 창조직업 종사자 수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'보건·의료' 직종의 경우 의사 등의 전문직이 포함되었음에도 소득 수준은 창조직업 전체 평균을 하회
 - 2010년 기준 '보건·의료' 직종의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43.8만 원으로 창조직업 전체 평균의 86.9% 수준
 - 해당 직종에는 고소득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의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창조직업의 소득은 더욱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
- 특히 '사회복지' 분야의 창조직업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직종
 - 고령화 사회에서 '보건·의료'와 함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'사회복지' 직종의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119.7만 원
 - 이는 전체 창조직업의 임금 근로자 소득 평균은 물론, 한국 전체 직업 및 비 창조직업의 소득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
- 이는 결국 창조직업 종사자 증가가 해당 직종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

< 직종별 창조직업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(2010년 기준) >

(단위: 만 원, %)

| 직종 | 평균임금 | 직종 | 평균임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관리직 | 518.3 (185) | 건설 | 324.7 (116) |
| 경영, 회계, 사무 | 431.7 (154) | 기계 | 333.8 (119) |
| 금융, 보험 | 480.3 (171) | 재료 | 283.5 (101) |
| 교육 및 연구 | 254.6 (91) | 화학 | 342.4 (122) |
| 법률, 경찰, 소방, 교도 | 461.0 (164) | 섬유, 의복 | 264.7 (94) |
| 보건, 의료 | 243.8 (87) | 전기전자 | 342.4 (122) |
| 사회복지, 종교 | 119.7 (43) | 정보통신 | 319.0 (114) |
| 문화, 예술, 디자인, 방송 | 230.3 (82) | 식품가공 | 290.0 (103) |
| 운전, 운송 | 464.8 (166) | 환경, 인쇄, 목재, 가구, 공예 | 245.6 (88) |
| 영업, 판매 | 285.3 (102) | 전체 | 280.6 (100) |
| 미용, 숙박, 여행, 오락, 스포츠 | 160.8 (57) | | |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주: (1) 직종은 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

(2) 창조직업은 창조전문직업, 핵심창조직업, 보헤미안직업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

(3) 괄호 안은 전체 창조직업 월 평균임금 대비 비율

(4) 창조직업이 없는 "경비,청소", "음식서비스", "농림어업"은 위의 표에서 제외.

【참고】 한국에서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창조직업

- 한국과 미국 간 창조직업 수의 차이가 큰 직종 내에서 한국에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창조직업
 - (지역사회서비스관리자)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 관리자가 필요할 전망
 - (기금조달자)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활성화 되면서 기금을 조달하는 전문가의 수요가 증대
 - (보상, 수익, 직업 분석가) 기업들의 사업 영역과 직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을 분석하고 필요 인재의 조건을 파악하는 직업이 요구
 - (천문학, 물리학, 핵관련 기술자) 우주 과학의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, 핵 관련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증대
 - (환경보존과학자)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환경 피해에 대한 추정 및 보존 관련 직업이 증가할 전망
 - (발 전문의) 각종 야외활동 및 스포츠가 빠르게 대중화되는 가운데 발의 질병에 대한 전문 의사의 필요성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
 - (자기역량강화 강사)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특성 상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직업의 증가가 전망

< 한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창조직업 직종 >

| 대분류 | 중분류 | 대표직업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관리직 | 지역사회서비스관리자 | 지역코디네이터, 가족서비스 관리자, 청소년 활동 관리자, 지역문제 상담 관리자 등 |
| 비즈니스,금융 | 기금조달자 | 기금조달자 |
| 비즈니스,금융 | 보상,수익,직업 분석가 | 은퇴설계전문가, 보상전문가, 직업분석가, 임금조정자 등 |
| 생명,물리, 사회과학 | 천문학, 물리학, 핵관련 기술자 | 우주과학자, 기체역학과학자, 건강물리학자 (방사능관련), 핵기술연구개발자, 방사선모니터링 전문가, 가속기 조직원 등 |
| 생명,물리, 사회과학 | 환경보존과학자 | 환경피해추정 전문가, 숲 생태전문가, 보존과학자 등 |
| 보건,의료 | 발 전문의 | 발 전문의, 발 관련 시술자 등 |
| 교육 | 자기역량강화 강사 | 과목별 자기학습주도 강사 등 |

자료: 고용노동부, U.S. Census Bureau, 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활용 재구성.
 주: 위에 제시된 직업은 모두 창조직업에 포함.

4. 시사점

첫째, 산업 구조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수요 변화에 대한 동향 파악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창조직업의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.

- 창조직업의 수요는 직종별 인력 수요, 인력의 연령 및 성별 구조, 구직자의 직업 수요 등에 따라 변화
- 따라서 선진국의 창조직업 변화, 국내외 사회·경제적 변화 등의 파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창조직업의 발굴이 중요

둘째, 창조직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창조직업 종사자 수 증대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.

- 최근 한국은 창조직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
- 따라서 창조직업 중심의 경제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조직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와 종사자 증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

셋째, '보건·의료', '사회복지' 외에도 다양한 분야 및 직종의 창조직업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.

- 현재 한국의 창조직업 종사자들은 '보건·의료', '사회복지'로의 쏠림 현상이 큰 특징을 보임
- 이는 해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구직자의 선호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나, 창조직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으로의 인력 유입이 요구

넷째, 여성에 적합한 창조직업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여성 인력의 지식 경제 유입에 노력해야 한다.

- '보건·의료', '사회복지'의 창조직업 종사자 확대는 여성 종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당 직종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기 때문으로도 해석 가능
- 이처럼 여성의 특성에 맞는 창조직업의 발굴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

다섯째, 창조 직업 종사자의 창조적 경제 활동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.

- 창조경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할 '문화·예술', '미용·오락'과 고령화 및 복지 사회에서의 핵심 직종인 '사회복지' 분야는 소득 수준이 낮은 대표 직종
-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시에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기 때문
- 따라서 이들 직종을 비롯한 창조경제 인력이 창출하는 성과에 대하여 타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

여섯째, 직업 전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 직업정보시스템의 조사 대상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직업 조사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.

- 직업이 전문화되고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노동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시스템의 보다 세분화된 분류 체계와 조사 대상 확대가 요구
- 특히 창조직업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시스템의 구축과 직업 조사의 선행이 중요 **HRI**

김필수 선임연구원 (pskim@hri.co.kr, 02-2072-6238)
오준범 연구원 (jbdevil@hri.co.kr, 02-2072-6247)
이부형 수석연구위원 (leebuh@hri.co.kr, 02-2072-6306)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| | | 2014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 연간(E) | 연간(E) | | |
| 국민계정 | 경제성장률(%) | 3.7 | 2.0 | 1.5 | 2.3 | - | 2.6 | 3.8 | |
| | 민간소비(%) | 2.4 | 1.7 | 1.5 | 1.7 | - | 2.0 | 2.7 | |
| | 건설투자(%) | -4.7 | -2.2 | 2.4 | 7.1 | - | 3.7 | 2.5 | |
| | 설비투자(%) | 3.6 | -1.9 | -11.9 | -5.1 | - | -1.5 | 6.7 | |
| 대외거래 | 경상수지(억 \$) | 261 | 431 | 100 | 198 | - | 620 | 490 | |
| | 통관기준 | 무역수지(억 \$) | 308 | 283 | 57 | 143 | 111 | 468 | 399 |
| | | 수출(억 \$) | 5,552 | 5,479 | 1,353 | 1,412 | 1,370 | 5,648 | 6,123 |
| | | 증감률(%) | (19.0) | (-1.3) | (0.4) | (0.8) | (2.9) | (3.1) | (8.4) |
| | | 수입(억 \$) | 5,244 | 5,196 | 1,297 | 1,269 | 1,259 | 5,180 | 5,724 |
| | | 증감률(%) | (23.3) | (-0.9) | (-3.0) | (-2.7) | (0.2) | (-0.3) | (10.5) |
|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| 4.0 | 2.2 | 1.4 | 1.1 | 1.2 | 1.4 | 2.4 | | |
| 실업률(%) | 3.4 | 3.2 | 3.6 | 3.1 | - | 3.3 | 3.1 | | |
| 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 | 1,108 | 1,127 | 1,085 | 1,123 | 1,111 | 1,098 | 1,070 | | |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